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 수용에 있어서의 이중적 태도



황재범(계명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참고 이 논문은 본인의 영어로 작성된 줄고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임.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을 보시오.
Jae-Buhm Hwang, "Korean Theologians' Ambivalent Responses to Calvinism,"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und Religionsphilosophie*, Vol. 53, No. 4 (2011):

I.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로교회의 주요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학적 근거가 되어야만 하는 칼빈주의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장로교회는 그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구 장로교회와 그 신학적 근거인 칼빈주의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범으로 하여 존재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가 참된 장로교회가 되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신학적 근거로서 칼빈주의를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과연 어떻게 수용해왔는가?

이 문제는 한국장로교회에 있어서 교단 정체성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상당히 많은 한국신학자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다루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박 형용 박사의 신학과 관련이 있다. 박 형용 박사야말로 한국장로교회에 칼빈주의를 누구보다 강하게 수용하고 정착시키고

자 했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해석의 문제는 교단과 더불어 신학자 개인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므로 박 형용 박사의 입장과 관계하여 잘 나타난 것처럼, 박 형용이 받아들인 칼빈주의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흑백논리가 팽배해왔다. 이와 같은 흑백논리가 대세가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게 되는 냉소주의가 자라게 되는데,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이런 냉소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있어왔다고 보겠다. 아무튼 칼빈주의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에서 그 주요 신학자들이 과연 칼빈주의를 어떻게 수용해왔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거의 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본 연구는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 수용의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는 칼빈주의적 토대의 형성 단계로서 대략 1890년부터 1920년대까지인데, 성경공부를 그 골자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므로 성경문자주의(Biblicism)가 뿌리내리는 시기이다. 여기서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서문자주의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대략 1910-30년대인데, 성경문자주의를 중시하는 구 프린스턴(Old Princeton) 칼빈주의가 신학적으로 평양신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에 뿌리내리게 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지도자들이었던 미국장로교회 선교사들 특히 마포 삼열과 이 늘서가 과연 어떤 종류의 칼빈신학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1930년대부터 1960년대로서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거친 구 프린스턴 칼빈신학이 한국교회에 한편으로는 정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척을 받는 단계이다. 성서문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선교사들의 구 프린스턴 신학은 일군의 한국 신학자들(박 형용, 박 윤선)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교조주의적 폐해가 있어서 이에 또 다른 일군의 신학자들(김 재준, 이 종성)은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박 형용과 박 윤선이 이해한 칼빈주의는 무엇이며, 또한 이를 반대 한 김 재준, 이 종성의 칼빈주의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초기 한국장로교회에서의 성서문자주의 신학의 형성 및 정착

1.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한 성서문자주의 신학의 형성과 정착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의 수용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칼빈주의적 신학의 틀(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그것은 바로 네비우스 선교방법에 의하여 정형화된 성서문자주의였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후대에 일어나게 되는 성서 축자영감 및 무오설의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흑백논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내한과 더불어 선교를 시작한 후 1890년에 소위 네비우스 선교방법(the Nevius Methods)을 실시하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므로 이 방법이 앞으로의 신학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와 더불어 한국개신교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소위 “삼자”(三自) 즉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을 의미한다.¹⁾ 꼭 안련 선교사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네

1) Kim In Soo, “Nevius Methods,” Scott W. Sunquist (ed.), *A Dictionary of Asian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2001), 598f.

비우스 선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들의 광범위한 개별적 순회전도.
2. 자전. 각 신도는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의 학생이 된다.
3. 자치. 각 교회는 무급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고, 지역회(circuit)는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다.
4. 자급. 신도들은 각 교회의 자급에 책임짐. 각 교회는 설립되면서부터 지역회 교역자의 급료를 지불하기 시작한다.
5. 모든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회 및 지역회 교역자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체계적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한다.
6. 성경에 근거한 벌칙이 부과되는 엄격한 치리가 있어야 한다.²⁾

사람들은 네비우스 방법을 단순하게 자전·자급·자치인 것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토대는 바로 “체계적인 성경공부”였다. 이것이야말로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5번째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인 것이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6번째 원칙인데, 성경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성경의 윤리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치리”를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 한국장로교회 교인

1) Charles Allen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0), 33f. “1. Missionary personal evangelism through wide itineration. 2. Self-propagation. Every believer a teacher of someone and a learner from someone else better fitted. Every individual and group seeking by the ‘layering method’ to extend the work. 3. Self-government. Every group under its chosen unpaid leaders; circuits under their own paid helpers who will later yield to pastors. 4. Self-support with all chapels provided by the believers; each group as soon as it is founded beginning to pay towards the circuit helper’s salary. 5. Systematic Bible study for every believer under his group leader and circuit helper. 6. Strict discipline enforced by Bible penalties.” Also see,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 (Seoul: Y. M. C. A. Press, 1934), 87f.

들은 모두가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매년 한두 번씩의 특별 성경공부(1-2주에 걸친 사경회)를 엄격하게 이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네비우스 선교방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중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첫째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통과의례(initiation ceremony)로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체계적 성경공부”를 이수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입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 정체성은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정치적·사회적·종교적 혼란기에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줌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이는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둘째, 저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교인들은 나아가서 새로운 삶과 말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능력있는 전도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였다(자전). 셋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헌신적이었으므로 대개의 교회는 자립할 수 있었다(자급). 넷째,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미 성경공부하면서부터 그들 교회의 교역자 아니면 지역회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때가 되면 리더십을 수행하고자 했다(자치). 이처럼 네비우스 방법은 “체계적 성경공부”를 통하여 구체화됨으로 크게 성공하여 한국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네비우스 방법은 이렇게 일면 좋은 효과를 낳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경공부를 중시하므로 “성서문자주의”를 야기했는데, 이것은 네비우스 방법의 부정적 효과라고 보겠다.

여기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에서의 성경공부가 “성서문자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이전까지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교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과거 한국 유교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이나 초기 한국 교인들은 성경의 다양한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나 여유가 없었기에 성

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의 성경의 말을 현재적 말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유교의 선비들이 2500년 전의 공맹의 말을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초기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실감나게 읽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의식은 그들에게 새롭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의식-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깊이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한 교인들은 전도에 힘쓰고 이를 통하여 한국개신교회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 단계의 단순한 성서문자주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서문자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을 소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근본주의적 배타주의를 낳는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는 1930년대부터 현실화되어 나타났고, 특히 해방 후의 혼란한 한국사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고, 이는 교단분열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발전되었다. 네비우스 방법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에 깊게 뿌리 내린 성서문자주의는 한편으로는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30년대부터 특히 해방 후에 오히려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요인 되었다고 보겠다. 한국장로교회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이와 같은 양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명한 일이라고 보겠다.

2. 12신조의 성서문자주의적 해석의 문제

이렇게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장로교회는 1907년에 교회정치기구로서 4개의 서구장로교회들(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로부터 독립한(inde-

pendent) 노회를 의미한 독노회를 설립하면서 12신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12신조가 성서문자주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성서문자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장로교회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에 따라 체계적 성경공부를 중시하므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므로 성서문자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네비우스 방법에서 강조되던 성서문자주의는 한국장로교회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12신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대한장로교회신경”으로 알려진 12신조는 1904년 인도장로교회에 의하여 헌법으로 채택된 것을 재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서문을 제외한 전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신생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으로 채택했던 것이다.³⁾

12신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요약한 것이지만, 칼빈주의 신학의 요체인 하나님의 예정론적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삼중직,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교회의 3대 표지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칼빈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약화된 신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주의적 색채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것은 오히려 성경에 관한 제1조라고 보겠다.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행한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기 업나니라.”⁴⁾ 그러나 이 조항에서 “확실한”(infallible)이란 말이 그 여간에 평양신학교에서의 성서 완전축자영감 및 무오설이 특별히 이눌서 선교사에 의하여 가르쳐졌고 또 서서히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으로써 1932년 헌법부터는 “정확무오한”이란 말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확실한” 혹은 “정확무오한”이란 말은 “믿음과

3)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채택과정과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다음의 줄고를 참조할 것.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 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상』 제573호 (2006, 9): 200-224. 또한 12신조의 새로운 번역과 더불어 12신조의 신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본인의 다음 줄고를 참조하시오.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 영어원문의 새로운 번역과 신학적 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6권 (2008): 113-40.

4)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 영어원문의 새로운 번역과 신학적 분석, 116.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

행할 본분”에 대하여 그러하다(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는 말이다. 즉 성경본문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34년 여성도 장로로 장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 천배 목사와 창세기가 고대 히브리 전설에 근거했다고 주장하여 그 이듬해 징계받은 김 영주 목사는 모두 12신조 제1조를 범했기-즉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 당시와 이후 일어난 한국판 “현대주의-근본주의 논쟁”(modernist and fundamentalist controversy)에 있어서 12신조의 제1조 계속 성경본문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성경의 문자적 해석만이 헌법에 부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III. 선교사들(마포 삼열 및 이 늘서)의 성서문자주의 신학

1. 마포 삼열 선교사의 실천적 성서문자주의

우리는 앞에서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성공을 통하여 성서문자주의가 한국장로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이는 나아가서 헌법의 12신조를 통하여 헌법적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한국장로교회의 성서문자주의적 신학경향은 당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미국남북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들 특히 마포 삼열과 이 늘서에 의하여 더욱 더 강화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마포 삼열 및 이 늘서 선교사가 과연 어떤 신학을 가르쳤는지를 조감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장로교회에 있어서 성서문자주의는 먼저 교리교육을 통하여 확립된 교리가 아니라, 이미 수 십 년간에 걸쳐서 시행되어왔고 또 수적성장의 결과를 도출해온 네비우스 방법을 통하여 확립된 교리였다는 점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신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미국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서문자주의

를 신학교육을 통하여 먼저 받아들이고, 한국장로교회에 와서 네비우스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했던 바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예 한국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a Biblical Christianity)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⁵⁾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한국장로교회의 성서문자주의와 그 근거로서의 성경 축약영감 및 무오설을 교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포 삼열(Rev. Dr.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이북 지방의 선교 개척자: 1890-1934; 평양신학교 설립자 및 총장: 1901-1922)은 평양지방에서 네비우스 방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성서문자주의에 근거한 체계적 성경공부의 폭발적 효과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했기에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자 했다.

1. 각 교인이 전도사역을 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전 교회는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해야만 한다.
3. 한국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자급해야만 한다.
4. 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자치해야만 한다.⁶⁾

5) H.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Seoul: Y. M. C. A. Press, 1934), 253. An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in Korea also attests: “One of the large elements of strength in the Christian life of the Korean Church is found in the place occupied by the Bible. The study and the practice of the word of God play a large part in all church plans and church policies in Korea... The Bible is the principal text book, studied systematically, book by book, and topic by topic. Usually ten hours a day is put in on this study. These classes last from a week to three weeks. There are separate classes for men and for women. Last year, fully 50,000 Korean Christians, or one in every five of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Church, took these courses of study. This constitutes one of the greatest Laymen’s Movements to be found anywhere on earth.” Se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tudents and the Present Missionary Crisis: Addresses Delivered before the Six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Rochester,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909), 309.

이와 같은 마포 삼열 선교사의 선교원칙은 사실상 네비우스 방법과 동일하지만, 성경의 영감설-성서문자주의-과 체계적 성경공부를 자급과 자치에 앞서 자전의 원칙으로 강조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마포 삼열은 이렇게 성서영감설을 강조했으나, 그가 그것을 평양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쳤다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2. 이 늘서 선교사의 교조주의적 성서문자주의

마포 삼열의 실천적 성서문자주의를 신학화하고 또 그것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리로 가르친 선교사는 이 늘서(Rev. Dr. William D. Reynolds, 1867-1951; 평양신학교 조직신학교수: 1905-1934)였다. 그는 아마 성경축자영감설 및 성경무오설을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늘서는 한국장로교회 신학교육사상 가장 중요했던 초기 30여년동안 성경의 축자영감설 및 무오설-성경문자주의-을 가르침으로 이것이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뼈대가 되도록 한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당시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의 위셔트(Dr. Charles F. Wishart) 교수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음성적”(verbal) 및 “완전”(plenary) 영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장했다.⁷⁾

6) Being a pioneering missionary to Korea's Northern regions, Dr. Moffett not only planted and directed numerous local churches, but founded and guided the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which for several years had the largest enrollment of any divinity college of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 in the world." Quoted from: "Sketch of Rev. Samuel Austin Moffett, D.D.," Presbyterian Church Archives, Record Group 360, Folder: Samuel A. Moffett. Also see, William N. Blair, "Samuel A. Moffett: On His Seventieth Birthday," *The Presbyterian* (1934), 6, cutting found in Presbyterian Church Archives, Record Group 360, Folder: Samuel A. Moffett.

그러나 이 늘서는 아마 한국에서 신학적 현대(자유)주의가 서서히 등장 하면서 미국장로교회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성서 영감론 및 무오설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적으로 (militantly) 신학적 현대주의자를 “기독교의 배도자” 및 “적 그리스도”로 단죄한다.⁸⁾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진화론을 부인하기까지 이른다.⁹⁾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한국장로교회에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토대를 놓은 신학자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구 프린스턴) 신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의 신학적 후계자인 박형용 박사를 통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늘서 선교사는 한국장로교회의 보수신학의 창시자들 중의 한 분으로 간주되어 왔다.¹⁰⁾

이 늘서의 신학은 박형용 박사의 신학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에 더욱 더 깊게 뿌리를 내리기에 그의 신학의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늘서는 『신학지남』에 단편적이며 변증적인 글을 상당수 발표했지만, 신학을 체계적으로 저술하여 출판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의 신학의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중국 난징신학교 조직신학교수 가옥명(賈玉銘)이 쓴 조직신학책(『神道學』)을 한국인 목사들에게 번역하게 하여 그것을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교재로 사용했는데, 이 책을 보면 그의 신학의 대략을 알 수 있다고 보겠다. 가옥명의 조직신학은 크게 보면 구 프린스턴 신학 특히 찰스 핫지(Charles Hodge)와 A. A. 핫지(A. A. Hodge)의 구 프린스턴 조직신학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주의와 침례교 신학을 연합하므로 구 프린스턴 신학보다 상당히 유연하고, 현대주의에 대하여 반대하지만 근본주의 경향은 보이지는 않은 스트

7) 이늘서 (W. D. Reynolds), “신학변증론”, 『신학지남』 Vol. 3, No. 1 (1920 봄), 77f.

8) 이늘서 (W. D. Reynolds), “근대신학주의는 배도하는 일”, 『신학지남』 Vol. 14, No. 6 (1927. 11): 20-25.

9) 이늘서 (W. D. Reynolds), “진화론을 부인하는 제사실”, 『신학지남』 Vol. 16, No. 5 (1934. 9): 47-50.

10) 김지찬, “총신구약학의 토대”, 『신학지남』 Vol. 74, No. 2 (2007. 6): 126-130.

롱(Augustus Hopkins Strong, 1836-1921)의 신학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책을 통하여 이 늘서 선교사는 1920년대까지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구 프린스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특징적으로는 성경의 축자적(음성적: verbal) 및 완전(plenary) 영감설과 무오설을 그대로 가르쳤다.¹¹⁾ 그리고 그의 구 프린스턴 신학과 더불어 그의 특징적인 성경의 축자영감설과 무오설은 그의 후계자 박형용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III. 한국장로교회 신학자들의 칼빈주의 수용

1. 보수주의적 신학자들의 칼빈주의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은 그것이 학문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네비우스 선교방법에 의하여 이미 성서문자주의적으로 정형화되었고, 이것이 헌법적으로 추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학적 지도자들이었던 미국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다시 학문적으로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같은 과정에서 토착화된 성서문자주의적 신학을 한국 신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문자주의적 신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보수주의적 신학자들과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 신학자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로서는 박 형용(1897-1978), 박 윤선(1905-1988)을,

11) 가옥명 저, 이 늘서 편집, 『기독교 증험론』(평양: 장로회신학교, 1931), 68-70. “공자— 일직 님으기를 ‘一言興邦이오, 一言衰邦이라’ 하였나니 이는 一言의 관계가 지극히 중요한 의미함이라. 성경 말씀은 더욱 사람의 永生死死와 유관한 것인데 만일 一字라도 그릇됨이 있다면 그 관계가 엇지 輕하다하리오. 그럼으로 성경의 계시는 비단 意義만 默感하였을 스분아니라 스도한 그 文字스까지 계시의 中에 있음이 진실노 맞당한바라. ...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篤信不疑하는 소이는 착오가 毫無함이니 그 말이 순전히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연고요. ... 그러나 新學派의 언론을 誤信하는 자들이 曰 성경저자들이 착오가 잇섯다하[니]. ... 만일 성경저자가 착오함이 잇섯다하면 시문하노니 그 착오가 과연 어느 때에 잇섯나뇨? 어느 때에 계시가 있고 어느 때에 계시가 없다고 능히 구별하겠나뇨? 억눌러 어느 토막[부분]은 계시요, 어느 토막은 계시가 아니라고 변명하겠나뇨?”

후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로서는 김 재준(1901-1987), 이 종성(1922-2011)을 검토할 것이다.

한국장로교회 보수주의 측을 대표해온 신학자들인 박 형용(1897-1978)박사와 박 윤선(1905-1988)박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함께 다룰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첫째 성경의 축자적 및 완전 영감설(무오설: Biblical inerrancy)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두 분은 성경무오설을 강조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역사적 칼빈주의와 동일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두 분의 성경무오설을 강조하는 신학은 내적으로 근본주의적 경향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마포 삼열과 이 늘서 선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친분 관계를 가졌던 박 형용, 박 윤선 박사는 그들의 신학을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밝히는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의 논쟁적 시대상황을 접하면서 논란의 핵이었던 성경의 축자완전 영감설을 논쟁적·변증적으로 신학을 전개하면서 그것을 신학의 핵심적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¹²⁾ 성경의 축자완전 영감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Karl Barth)도 만약 자신이 성경영감설과 자유주의신학의 고등비평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성경영감설을 택하겠다고 했고, 또 로이드-존스(Mar-

12) Hyōng-yong, *Park Hyōng-yong baksa jōjak jōnjip* (The whole writings of Dr. Park Hyōng-yong) Vol. I (*Kyōūi sinhak sōron* [dogmatic theology - prolegomena]) (Seoul: Park Hyōng-yong baksa jōjak jōnjip ganhaeng uiwŏnhoe, 1983), 235-367. Here Hyung-Yong Park deals with "Chapter 4: The Revelatory Nature of the Holy Scriptures," "Chapter 5: The [Verbal and Plenary]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nd "Chapter 6: The Inerrancy of the Holy Scriptures." Yune-Sun Park also takes the doctrine of the plenary and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for granted, even saying that Calvin himself upheld the doctrine of 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See, Yune-Sun Park, "Uriū Sōngkyōng," (our Holy Scriptures), *Sinhakjinam*, Vol. 137 (Summer, 1967), 13. When he speaks of Reformed theology, Yune-Sun Park just highlights its doctrine of the Bible, simply emphasizing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See Yune-Sun Park, "Gyehyōkjuūi sogo," (A brief study of Reformed theology), *Sinhakjinam*, Vol. 185 (Fall, 1979), 13-24.

tyn Lloyd-Jones)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성서영감설은 신학의 토대이며 출발점이지 내용 전체는 아니다. 성서영감설을 인정한다고 해도, 성서영감설에 근거하여 신학전체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박 형용 및 박 윤선 박사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축자완전 영감설이 머리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특징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아쉬움이 든다.

둘째, 박 형용, 박 윤선은 크게 본다면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구 프린스턴 신학을 역사적 칼빈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박 형용, 박 윤선 박사는 선교사들의 구 프린스턴 신학에 따라서 성경의 축자완전 영감설을 가장 중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구 프린스턴 신학을 표준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이것이야말로 두 분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 프린스턴 신학의 번역에 불과했고, 그런 점에서 박 형용 박사는 “한국의 메이첸”(Gresham Machen)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두 분은 칼빈이나 역사적 칼빈주의 혹은 청교도사상은 거의 인용하지 않고, 단순히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Charles Hodge, A. A. Hodge, Benjamin Warfield, Gresham Machen)과 일부 화란 개혁주의자들(H. Bavinck, L. Berkhof)을 중시하되 그들 역시 성경 축자완전 영감설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시한다(참고로 박 형용 박사가 “도립[倒立]을 함께 한다”고 했던 벌코프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성서론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분의 신학사상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 프린스턴 신학의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닐 것이다.¹³⁾

셋째, 두 분의 신학은 면밀하게 평가한다면 근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략 세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19세기-20세기 초반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그 자신을 절대화하고 다른 신학은 아류로 보는 근본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위필드의 신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신학을 카톨릭주의, 루터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개혁주의로 나누고 이를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보는 특수주의와 은혜주의에 비추어 대하여 평가한 후 결국 개혁주의가 최고의 신학으로 단정한다. 둘째, 한국교회의 근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정통 vs 이단”의 사고를 강조하던 유교적 사고방식¹⁴⁾에 영향을 받은 바가 많다고 보겠다. 그리고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쟁이 일어난 시대상황이 성경의 축사완전 영감설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자들을 대부분 파괴적 현대(자유)주의자 혹은 신신학자로 정죄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겠다.¹⁵⁾

-
- 13) One of Yune-Sun Park's disciples criticized him for not citing John Calvin, See Sung-Soo Kwon, "Park Yune-Sun Paksa ū Sōngkyōng Haesōkhak" (Biblical hermeneutics of Dr. Yune-Sun Park), *Sinhakjinam*, Vol. 222 (Winter, 1989), 116. Hyung-Yong Park presents Calvin's theological principles by and large according to the so-called five points of Calvinism. See Hyung-Yong Park, "Kalvin Sinhak ū Gibonwōnri" (Theological principles of John Calvin), *Sinhakjinam*, Vol. 122 (Fall, 1962), 252-255. When he speaks of "Reformed theology," Yune-Sun Park presents just a summary of vague conservative theology, even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reference to Calvinism. See, Yune-Sun Park, "Gyehyōkjuū sogo," (A brief study of Reformed theology), *Sinhakjinam*, Vol. 185 (Fall, 1979), 13-24.
- 14) Korea during the Confucian dynasty (1392-1910) had a strong Confucian orthodox fundamentalism against Buddhism and Confucian heterodoxies. As Martina Deuchler explains, "From the beginning [the thirteenth century] the Neo-Confucians were in control and fully committed to transforming Korea into a Confucian state in which [Chu Hsi's] Neo-Confucianism would be properly preserved. The development of Neo-Confucian orthodoxy (*chōnghak*) gained momentum through its contest with heterodoxy (*idan*)." See Martina Deuchler, "Reject the False and Uphold the Straight: Attitudes Toward Heterodox Thought in Early Yi Korea," Wm. Theodore de Bary et al. (eds.),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376.
- 15) 이와 같은 "나는 정통, 너는 이단"이라는 사고는 정죄하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것은 옳고 다른 것은 다 그르다는 주장은 사실상 항상 개혁해야 하는(*semper reformanda*) 개혁주의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내 것 역시 틀릴 수 있고, 또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은 없고, "죽은 정통"(로이드-존스)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로이드-존스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며,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리의 사소한 차이에 대하여 집안사람들끼리 목숨을 걸고 쟁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주 신학자들이 논쟁적·투쟁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모방적 신학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2. 진보주의적 신학자들의 칼빈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주의적 신학자들은 성서 완전축자 영감설을 변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사용하다가 구 프린스턴 신학에 갇히게 되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학자들(특히 김 재준, 이 종성)은 박 형용의 칼빈주의에 질린 나머지 칼빈주의 자체와 거리를 두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한국장로교회에는 그 동안 금과옥조로 되어 왔던 성서문자주의가 도전을 받게 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방어하는 가운데 그것을 칼빈주의와 동일시하면서까지 합리화한 일면이 있었다. 이에 교회의 진보주의자들은 저들과 같이 양자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부정적 측면만을 본 나머지, 양자 모두를 배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근거로서 칼빈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받아들여져 온 바르트주의(Barthianism)을 택하면서 더욱더 칼빈주의를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김 재준(1901 - 1987)은 성서문자주의와 구 프린스턴 신학이 팽배해 있던 평양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르트주의가 강한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을 했다(1926-1932)는 점에서 이미 박 형용과 매우 다른 신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 재준은 1934년부터 불거져 나온 “현대주의-보수주의 논쟁”에서 용감하게 현대주의 입장에 서게 되고, 1947년 평양신학교 전통과 다른 조선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성서무오설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1953년에 장로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였다. 결과적으로 김 재준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의 보수신학과 다른 진보적, 바르트적 칼빈주의를 따르는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설립하게 이르렀다.

김 재준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들 및 박 형용의 칼빈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17세기의 과학이전 시대의 정통주의 신학

을 한국인들에게 세뇌시켰다”고 보면서 한국기독교 처음 “50년간은 마치 서구의 중세 암흑시대와 같았다”고 주장했다.¹⁶⁾ 이렇게 김 재준은 선교사들의 서서문자주의적 신학을 부정적으로 보며 나아가서 이를 구 프린스턴 신학 및 칼빈주의와 동일시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칼빈이나 칼빈주의를 거의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진공상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칼빈주의의 대안으로 바르트주의를 원용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구축하고자 했다.¹⁷⁾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 재준은 바르트의 그리스도론을 충분히 원용하지 못하고,¹⁸⁾ 어떻게 본다면 독일자유주의(특히 하르낙)이 강조한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형용이나 김 재준보다는 한 세대 어린 이 종성(1922-2011)은 박 형용, 김 재준 양자 모두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칼빈주의를 건설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종성은 특히 박 형용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측과 통합측의 투쟁 및 분열을 목도하면서 박 형용의 신학(구 프린스턴 신학)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선교사들 및 박 형용의 신학을 통칭하여 칼빈주의 신학-“엄격 체계”로 “극단화된”-으로 보면서, 이것은 칼빈 자신의 신학과는 다른 것, 즉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¹⁹⁾ 그러므로 그

16) 김재준, “권위와 지성의 갈등,” 『기독교사상』 Vol. 119 (1968. 4), 33.

17) Jae-Jun Kim, “Hankuk kyohoe ūi sinhak undong” (The theological movement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idokkyosasang* (Christian thought), Vol. 28 (Jan., 1960), 16. So says Kim: “Christ so enlightens our hearts and minds that he may make us, before him, question about [his] truth with our humble freedom. It is in this sense that we interpret the Bible with Christ’s help. What evaluates Christ is not the Bible itself, let alone a doctrine of the Bible; we re-assess and interpret the Bible with the light and heart of Christ. With this point, we reject the fanatic faith in the orthodox doctrine of 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18) Kim himself confesses that he has been free from the theology of Karl Barth or Emil Brunner, having studied it from a bird’s eye view. See, Jae-Jun Kim, “Naega yŏngnyang badūn sinhakja wa gū jŏsŏ” (The theologians and their works that have influenced me), *Kidokkyosasang* (Christian thought), Vol. 78 (July, 1964), 42.

는 선교사들 및 박 형용의 신학은 통째로 버리고 칼빈 자신의 신학을 수용하고자 “기독교강요”를 부분적으로 번역했고, 칼빈 신학 해설서를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재준에게 이미 나타난 것처럼 칼빈신학이나 칼빈주의 신학은 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단권 조직신학 책²⁰⁾을 보면 칼빈주의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적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삼중직분론, 성찬에서의 영적 임재 등은 전연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칼빈주의 신학, 즉 성서문자주의적 신학이 어떻게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가 되어왔는지,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첫째로, 한국에 온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성서문자주의를 그들의 한국 추종자들에게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분석해보았다. ‘자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자급’과 ‘자치’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은 방법론으로 효과를 본 단순한 성서문자주의식 성경 연구를 통해서이다. 그와 같이 방법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급속한 교회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성서문자주의를 당연시 하게 되었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성서문자주의는 1907년에 조직적인 칼빈주의 신조가 채택됨으로써 교리적으로도 허용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검증한 것은 마포삼열 박사(Dr. S. A. Moffett)의 비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성서문자주의와 교회를 더욱 성서문자적이 되도록 한 이눌서 박사(Dr. W. D. Reynolds)의 근본주의적 성서문자주의다. 이눌서는 명확한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

19) Jong-Sung Lee, “Park Hyng-Yong kwa hankuk Jangnokyohoe” (Hyung-Yong Park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Sinhaksasang*, Vol.25 (1979), 52.

20) 이종성,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었는데, 그가 진화론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비평을 적그리스도요 비 기독교도라고 비난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넷째로, 주지의 사실은 칼빈주의에 대한 한국장로교 신학자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다는 점이다. 상당히 불안정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대표격인 박형용과 박윤선은 칼빈주의를 주로 자신들의 성서문자주의를 옹호하는데 사용했고, 심지어 20세기 초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의 구프린스톤 신학을 역사적 칼빈주의와 동일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주의적 칼빈주의와는 다른 칼빈주의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 김재준과 이종성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진영은 엄격한 보수적 칼빈주의와 성서문자주의 입지에 압도되어 가능한 칼빈주의와 멀리 떨어지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들 역시 칼빈주의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칼빈주의는, 그것을 교회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회의 진정한 정치와 신학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근간이다. 교회가 칼빈주의를 창조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BIBLIOGRAPHY

- Blair, William N. "Samuel A. Moffett: On His Seventieth Birthday," *The Presbyterian* (1934), 6, cutting found in Presbyterian Church Archives, Record Group 360, Folder: Samuel A. Moffett.
-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1.
- Clark, Charles Allen.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0.
- Daehan Yesukyo Changhohoe Chongho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ōnbōp* (The constitution). Seoul: Hankuk Changnokyo Choolpansa, 2003.
- Deuchler, Martina. "Reject the False and Uphold the Straight: Attitudes Toward Heterodox Thought in Early Yi Korea." Wm. Theodore de Bary et al. (eds.),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Gale, James 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U. S. A. and Canada, 1909.
- Hodge, Archibald A. *Outlines of Theology*.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60.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3.

Hwang, Jae-Buhm. "Rev. Kil Sŏn-ju's Theology Emphasizing Spiritual Endeavour, Revivalism and the Biblical Inerrancy: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the Great Revival of 1907 in P'yŏngyang." *Acta Koreana*, Vol. 10, No. 2 (July, 2007): 101 - 119.

_____ "Daehan Jangno Kyohoe Sinkyŏng hogŭn 12 Sinjo yŏngŏ wŏnmunŭi saerowun bŏnyŏkkwa sinhakjŏk bunsŏk" (A new translation and the-ological analysis of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of the Creed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 Twelve Articles of Faith). *Hanguk Gidokkyo Sinhak Nonchong* (Journal of Korean Christian theology), Vol. 56 (2008): 113 - 139.

_____ "A Study of the Fundamentalist Tendency in Korean Protestant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cta Koreana*, Vol. 11, No. 3 (Dec, 2008): 113 - 142.

Kim, In Soo. "Nevius Methods." in Scott W. Sunquist (ed.), *A Dictionary of Asian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598f.

Kim, Jae-Jun. "Hankuk ŭi jaerae jongkyo wa gŭrisdokyo"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and Christianity). *Kidokkyosasang* (Christian thought), Vol. 13 (Aug. and Sept., 1958): 68 - 75.

_____ "Hankuk kyohoe ŭi sinhak undong" (Theological movements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idokkyosasang* (Christian thought), Vol. 28 (Jan., 1960): 10 - 23.

_____ “Naega yŏngnyang badŭn sinhakja wa gŭ jŏsŏ” (The theologians and their works that have influenced me). *Kidokkyosasang* (Christian thought), Vol. 78 (July, 1964): 24–42.

_____ “Kwŏnwi wa jisŏng ũi kaldŭng” (The conflict between authority and intellect). *Kidokkyosasang*, Vol. 119 (April, 1968): 28–34.

Kim, Ji Chan, “Chongsin guyakhakŭi todae” (the foundation of the O. T. theology of the General Assembly’s Seminary), *Sinhakjinam*, Vol. 74, No. 2 (June, 2007): 92–135.

Kwak An-ryŏn (Rev. Charles A. Clark). “Chosŏn Yasokyo Jangnohoe Sinkyŏngron (A study of the creed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Sinhakjinam* (Theological compass), Vol., 2, No., 2 (1919): 71–83.

Kwon, Sung-Soo, “Park Yune-Sun Paksa ũi Sŏngkyŏng Haesŏkhak” (Biblical hermeneutics of Dr. Yune-Sun Park). *Sinhakjinam*, Vol. 222 (Winter, 1989): 100–137.

Lee, Jong-Sung. “Park Hyng-Yong kwa hankuk Jangnokyohoe” (Hyung-Yong Park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Sinhaksasang*, Vol. 25 (1979): 47–69.

_____ *Yiyagiro punŭn Jojiksinhak* (A narrative systematic theology). Seoul: Daehan-kidokkyosŏhoe, 1997.

Lee, Nul-Seo. (W. D. Reynolds). “Sinhak Pyŏnjŭngron” (Christian apologetics), *Sinhakjinam*, Vol. 3, No. 1 (April, 1920): 67–78.

_____ “Sŏnggyŏngŭn muohan hananimŭi malsam” (The Bible as the infal-
libile Word of God). *Sinhakjinam*, Vol. 9, No. 4 (October, 1927): 23 –
30.

_____ “Gŭndae sinhakjuinŭn baedohanŭn il” (Theological modernism as
betrayal of Christian truth). *Sinhakjinam*, Vol. 14, No. 6 (November,
1927): 20 – 25.

_____ (ed.), Gidoggyo jŭnghŏmron (Evidences of Christianity). *Systematic
Theology*, Vol. 1, Pyongyang, Korea: Jangnohoe sinhaggyo, 1931.

_____ “Jinhwaronŭl buinhanŭn jesasil” (Many facts denying evolutionism).
Sinhakjinam, Vol. 16, No. 5 (September, 1934): 47 – 50.

Meeter, John E. (e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 B. Warfield*, Vol. II.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3.

Park, Hyung–Yong. “Kalvin Sinhak ŭi Gibonwŏnri” (Theological principles of
John Calvin). *Sinhakjinam*, Vol. 122 (Fall, 1962): 252 – 255.

_____ *Gidokkyo hyŏndae sinhak nanje sŏnpyŏng* (Critique of selected mod-
erntheological problems). Seoul: Ŭnsŏng Chulpansa, 1975.

_____ *Park Hyung–Yong Paksa Jŏjak Jŏnjip*, Vol. XIV (The collected works
of Dr. Hyung–Yong Park). Seoul: Hankuk Kidokkyo KyoyukYŏnku–
won, 1981.

_____ *Park Hyŏng–yong baksa jŏjak jŏnjip* (The whole writings of Dr.
Park Hyŏng–yong) Vol. I (Kyoŭi sinhak sŏron [dogmatic theology –
prolegomena]).

Seoul: Park Hyŏng-yong baksa jŏjak jŏnjip ganhaenguiwŏnhoe, 1983.

Park, Yune-Sun. "Uriŭi Sŏngkyŏng," (our Holy Scriptures), *Sinhakjinam*, Vol. 137(Summer, 1967): 5-14.

_____ "Karl Barth Romasŏ Sŏnpyŏng" (Critique of Karl Barth's commentary on the Romans), *Sinhakjinam*, Vol. 141 (Summer, 1968): 91-115.

_____ "Sŏngkyŏng ŭi kwŏnwi" (The authority of the Bible), *Sinhakjinam*, Vol. 152(1971): 6-19.

_____ "Hankuk sahoeka jihyang haeya hal todŏkkwan" (The ethic which the Korean society shall adopt), *Sinhakjinam*, Vol. 156 (Spring, 1972): 23-26.

_____ "Gyehyŏkjuŭi sogo" (A brief study of Reformed theology), *Sinhakjinam*, Vol. 185 (Fall, 1979): 13-24.

Ryu, Dae Young.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in Korea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Church History* 77:2 (June, 2008): 371-398.

Rhodes, Harry A.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 Seoul: Y. M. C. A. Press, 1934.

Rogers, Jack B. and McKim, Donald K.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An Historical Approach*.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9.

Shearer, Roy E. "The Evangelistic Missionary's Role in Church Growth in Korea."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Vol. 54 (1965):

“Sketch of Rev. Samuel Austin Moffett, D.D.,” Presbyterian Church Archives,
Record Group 360, Folder: Samuel A. Moffett.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tudents and the Present
Missionary Crisis: Addresses Delivered before the Six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Rochester,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
sions, 1909.

Warfield, B. B. “The Inerrancy of the Original Autographs,” *The Independent*
(March 23, 1893).